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

과제책임자 최윤정 부연구위원 (Tel: 02-3156-7176 / E-mail: cyj@kwidmail.re.kr)

March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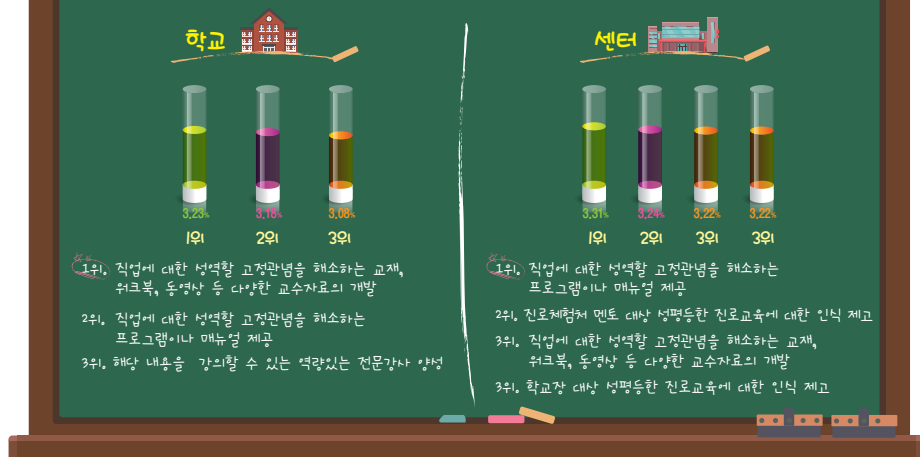
##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지원 요구

- 전국단위 실태분석 결과, 진로교육 내 성차별과 성편견 내재화, 성평등 관점 결여되어 있어
- 특히, 학교밖 체험 등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에 대해서는 안전공백 상태
- 교사, 강사, 멘토들의 낮은 성평등한 진로의식과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전략 필요
- 지원요구로는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자 인식 제고 요청이 가장 높아

### 초록

-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근본적으로는 직업과 진로의 선택에 좌우되고 있음에도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다는 인식하에 성평등 관점이 배제된 진로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성별 편견이 없는 진로선택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진로교사와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를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진로교육 과정에서 여전히 교사에 의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도 성 편견에 갇혀있으며, 무엇보다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체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차별 및 성희롱 등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부재한 것이 확인됨. 또한 현장에서는 교사와 체험처 담당자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역량 부족, 예산 부족 및 매뉴얼 부재 등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대표 프로그램 개설과 시행, 관련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식 및 역량 제고,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환류체계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였음.

###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사와 진로 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요구도 우선순위



## 1. 배경 및 문제점

- ④ 여학생들의 학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을 능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로선택에서의 성별 분리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침.
- ④ 지난 2015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여학생들의 수학성취가 남학생들을 따돌리고 있음에도 여학생들의 공대 진학률이 여전히 18.4%에 머무르는 현실은 남녀학생의 진로선택이 개인의 적성과 자질이 아닌, 사회적 편견과 성별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훌륭하고 똑똑한 여성들을 힘껏 육성하고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전략의 한계를 보여줌.
- ④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과 시행,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확대와 각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확대된 진로교육 영역에서 성평등한 관점이 배제된 현실을 들여다보고, 남녀학생이 편견 없는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둬.

## 2. 조사결과 및 국내외사례

### ④ 성평등한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전국 중학교 진로교사 623명,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106명</li> <li>• 표집방법 : 지역별 학교특성별 비례 할당 후 분석표본 수는 총 623개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18개 기관 중 149개 기관 무작위추출</li> <li>• 조사기간 : 6월 29일~7월 20일(학교), 7월 10일~8월 3일(센터)</li> <li>•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omputer Assisted Web)</li> </ul>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진로교사 5명,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4명, 직업체험강사 5명, 중학생 10명 등 총 24명</li> <li>• 조사기간 : 6월~10월</li> </ul>

#### ▶ 진로교육 관계자들의 성평등의식 부재와 진로교육 현장에서의 성차별

- 진로교사를 비롯하여 일반 교사,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학부모, 직업인 멘토 등 진로교육 현장의 당사자들 자체가 진로와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적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진로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FGI 결과, 담임교사가 네일아트 체험을 한 남학생을 비웃고, 상담교사가 ‘여자는 예뻐야 되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학생들의 성향의 변화와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편견 없는 진로를 장려해야 할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성차별의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목격됨.

- 학교의 9.6%, 센터의 12.3%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에서 성희롱적, 성차별적 언행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성차별적,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람으로는 진로체험처 멘토가 가장 많고, 학부모와 일선교사도 적지 않았음. 센터 대상 조사에서는 진로교사 또한 체험처 멘토와 학부모 못지 않게 성차별,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희롱, 성차별을 경험한 학교의 45.0%, 센터의 23.1%가 특별한 대응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임.
-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진로교사의 72.7%, 센터 담당자의 75.5%가 '남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직업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담당자들(학교 27.0%, 센터 24.5%)은 여전히 '남녀학생에게 동등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기회의 평등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었음.
- 이는 진로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체자들의 성별 이분화 된 직업관과 낮은 젠더 감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체험처 멘토들의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다양한 진로에 대한 욕구

- 남녀학생들이 가장 많이 체험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직업체험 선택에 성별 이분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아기부터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학생들의 의식 속에 이미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인의 자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을 강조해야 할 교육이 이에 대한 아무런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76.2%의 학교와 77.4%의 진로체험센터에서는 타 성별이 다수인 직업에 관심을 둔, 다시 말해 성별 비전통적인 직업에 관심을 둔 학생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남학생 등 FGI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성역할을 거부하고 비전통적인 직업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 성평등한 진로교육 운영 실태

- 초·중·등 진로교육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학교 75.4%, 센터 70.8%)은 높은 수준이나,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62.6%인 반면, 센터는 20.8%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학교와 센터 모두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교재와 매뉴얼 부족(학교 76.2%, 센터 53.8%)을 꼽았음. 센터의 경우 담당인력 부족도 56.4%에 달해 센터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낮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음.
- 교육 방식의 한계 또한 확인됨.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대부분 강의와 특강 방식으로 이루어져 체험, 상담, 견학 등의 활동이나, 다양한 방식 간의 연계 비율은 여전히 낮음.
-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 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비율(학교 69.0% 센터 36.4%)이 낮지 않은데, 많은 교사들이 외부강사를 섭외할 때 지인의 소개에 의지하는 등의 애로가 있어 일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공급체계의 마련이 시급함.
- 성평등 진로교육의 지속적인 질적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후평가 또한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진로교육 사후평가에 성희롱·성추행 여부 및 대응이 포함된 비율은 학교 23.7%, 센터 28.1%였으며,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비율은 학교 25.3%, 센터 18.8%에 불과함.

### ▶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시도와 의미

-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의 의식 부족과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안팎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활동을 시도하는 경우가 소수 있는 것으로 발견됨. 진로교사가 진로교과수업에서 직접 진로 및 직업에서의 성평등을 내용으로 수업하거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젠더와 직업’이라는 진로강좌를 마련하여 사회과 연계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진로상담을 통해 비전통적 분야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을 격려한 사례, 비전통적 직업에 대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례, 직업인 멘토나 학부모 진로코치단에게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함.
- 이처럼 진로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참여 경험을 분석해 볼 때, 성평등한 진로교육은 첫째, 학생들이 성 고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둘째, 비전통적 진로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잠재된 관심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셋째, 소수의 비전통적 진로분야에 대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거 해도 괜찮다!’고 말해줌으로써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음.

- 특히, 학생들의 직업선택은 자신의 직업세계 인식과 개인의 고정관념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세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성평등한 진로프로그램은 편견을 깬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음.

#### ▶ 성평등한 진로교육 지원 요구

-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평등한 진로교육에 대한 진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기타 일반교사들의 인식 개선, 성평등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다양화, 성평등한 진로교육 전문강사 양성, 직업체험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성평등한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와 담당자들의 지원요구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진로교사의 경우에는 교재, 워크북, 동영상 등 다양한 교수자료의 개발(3.23점, 센터 3.31점)을, 센터의 경우에는 성평등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제공(3.25점, 학교 3.18점)을 강하게 요구하였음. 그 외 요구도가 높은 내용으로는 학교는 해당 내용을 강의할 전문강사의 양성(3.08점)을, 센터는 진로체험처 멘토 대상 성평등한 진로교육 인식 제고(3.20점)와 학교장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인식 제고(3.24점)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보다 본격적인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꾸준한 프로그램 및 교수자료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전문성 있는 교수자의 발굴과 풀(pool) 구축 및 공유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학교 및 센터에서 실시한 성평등한 진로교육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90%를 상회한다는 결과는 성평등한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으며 공급 또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강화해나가야 할 시기임을 보여줌.

### ④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국내외 사례

#### ▶ 국내 사례

- 정부사업인 케이-걸스데이(K-Girls' Day)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산업기술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진로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성평등 관점이 적용된 사례임. 기업과 연계하여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R&D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 서대문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여학생에게는 남성 다수 직종을, 남학생에게는 여성 다수 직종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완화하도록 안내함. 학부모 요구조사와 전문가 협의, 학교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양천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진로코치단 양성 과정 내 학부모들의 성평등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젠더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대중문화의 성차별적 요소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 등 주로 토론 중심으로 진행함.

## ▶ 해외 사례

- 독일의 걸스데이(Girls' Day-Mädchen-Zukunftstag : 소녀들을 위한 미래 전망의 날)는 5학년부터 10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기업이 연계하여 여학생들에게 남성 다수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독일 걸스데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과는 걸스데이가 단순한 학생들의 직업진로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턴 등 실질적인 취업의 통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참여 기업의 3분의 1(32.7%) 가량이 걸스데이를 통해 지원서를 받고 있고, 실제 참여자의 2분의 1(21.3%) 이상이 걸스데이를 통해 해당 기업 채용에 참여한 적이 있음. 이는 기업과 학생이 상호 유익을 얻는 통로로 걸스데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영국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를 통해 성 고정관념을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교수자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학습자료뿐 아니라 PPT, 시청각자료 등을 다운로드 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음. 더 나아가 2018년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교육 및 직업연수 종사자(교사, 교직원 등)의 진로교육 법정지침을 지정하면서 성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함.
- 프랑스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는 전국의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Avenir (Future) Course(장래 탐색과정)'를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서는 '에튀스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교육자료를 제공하는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진로교육자료를 별도로 제작, 배포함.
- 오스트리아는 2012년 진로교육에 'IBOBB(Information, Beratung und Orientierung für Bildung und Beruf: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조언 및 오리엔테이션)'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여기에 성인지적인 진로교육 지침을 마련,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진로교육의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도록 함.
- 아일랜드 정부는 '2016-2019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Education)'을 발표하고, 여기에 성불평등 감소 등의 내용을 포함함. 학부모, 진로교육 카운슬러, 고등교육기관, 학생 각 차원에서 이 계획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VHTO(이공계 여성 전문가 기관)와의 협력을 통해서 성평등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고, 종사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성 고정관념이 진로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음.

### 3. 정책 제언



####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준 마련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교육법 내 성평등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개정(안) 제시(진로교육법 제4조 개정)
- ▶ 아울러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진로교육에서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준과 내용을 담은 「(가칭)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운영 안내」를 발간 제안
- ▶ 현장 교사 및 체험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시급함. 또한 개발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꿈길」 내 「성평등한 진로교육 핸드북」사이트를 개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개발 및 축적
- ▶ 현재 안전공백 상태에 있는 진로교육 내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배포



#### 성평등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시행

- ▶ 독일 걸스데이와 보이스데이와 같이 각 지역별로 시행하면서, 남학생까지도 포괄하는 「(가칭)성평등한 진로체험의 날」 제안
- ▶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청소년층으로 확대, 「(가칭) 청소년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성평등한 및 여성 리더십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 현재 산업통상부가 운영 중인 케이-걸스데이에 대해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등 교육적 기능 강화



#### 다양한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식과 역량 제고

- ▶ 진로교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적 언행들이 체험처 멘토와 학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의무화
- ▶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에 있어서 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걸림돌이 되는 만큼 진로교육 양성과정 내 포함하는 방안이 시급(현재 자격 연수 700시간 동안 성평등 교육 전무)
- ▶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을 통해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B 구축 「꿈길」 내 설치
- ▶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학부모 대상 성평등한 진로의식 고취를 위해 안내문 정기 발송, 온라인교육의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실시



##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환류체계 강화

- ▶ 시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시 진로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 진로교육인증제 평가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포함
- ▶ 매년 실시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도 관련 조사문항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주체들의 관심 환기

정책방향	정책방안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로교육법 개정(제4조 개정)</li> <li>2)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지침(가칭 「성평등한 진로교육 운영 안내」) 마련</li> <li>3) 풍부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꿈길 내 「성평등한 진로교육 핸드북」 사이트 개설</li> <li>4) 진로교육 내 성차별·성희롱·성폭력 가이드라인 개발 및 「안전한 진로교육 체험 핸드북」에의 반영</li> </ul>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대표 프로그램 개설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녀학생을 위한 성평등한 진로체험의 날 지정 및 추진</li> <li>2) 「(가칭)청소년 여성인재아카데미」의 개설 및 운영</li> <li>3) 케이-걸스데이(K-girl's day)의 교육적 프로세스 강화</li> </ul>
다양한 주체들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식 및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험처 멘토 및 학부모 진로코치 대상 성평등한 사전교육 의무화</li> <li>2) 진로교사 양성과정에서 및 관리자 교육에서의 성평등한 진로교육 의무 포함</li> <li>3)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전문강사 양성 및 풀(pool) 구축</li> <li>4) 학부모 대상 성평등한 진로의식 제고</li> </ul>
성평등한 진로교육의 환류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시 진로교육 포함 의무</li> <li>2) 진로교육인증제에서의 평가지표 포함</li> <li>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내 조사문항 포함 및 성별 분리 분석 실시</li> </ul>

## 참고 자료

- 1)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2018.05.20.).
-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주관부처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학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